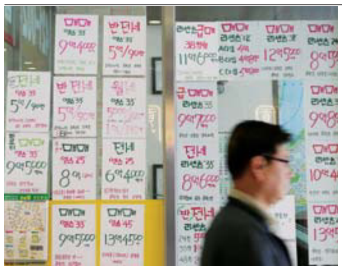
Economy p/14



전세난민에 경기 집값 들썩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제330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6일>

지표	지수	변동
코스피	1975.45	(+37.89)
코스닥	676.48	(+9.73)
금리(국고채 3년)	1.67	(+0.02)
환율(원·달러)	1174.00	(−7.50)



끝없는 난민 혼돈의 유럽

관대하던 독일도 국경 통제 재개 움직임
근본대책 없을 땐 '하나의 유럽' 깨질판
"난민 속 IS 대원 다수" 테러공포도 가중

'하나의 유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아닌 이슬람 난민 사태였다.

15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파리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내년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솅겐조약에게는 곧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통합의 본질로 불린다. 사실상 국경선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 난민사태는 이슬람국가(IS)의 발흥 등 중동의 정세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IS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떠돈다는 시리아의 내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되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난민 사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유럽은 삐걱거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솅겐조약 가입국인 헝가리는 이날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전면 통제했다. 우회로가 될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와의 국경도 곧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날 다른 가입국인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하루 앞서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마저 '임시'라는 명목으로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가 독일임을 감안하면 독일의 조치가 연쇄반응을 일으킨 셈이다. 난민이 자국 영토에서 발이 묶이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국가가 국경 통제 직전 보인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다. 독일이 국경 통제에 나서자 헝가리는 솅겐조약 밖 국가인 세르비아를 거쳐 들어온 2만명 가까운 난민을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실어 보냈다. 오스트리아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선수를 친 것이다. 깜짝 놀란 슬로바키아 정부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했다.

독일의 국경통제는 동유럽 회원국가들의 반대로 EU의 난민할당 논의가 무산되자 압박의 성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핀란드까지 국경 통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다. 직접 난민을 받아야 하는 지방정부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독일은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난민 비극은 국경을 없앤 유럽의 정책 때문"이라고 독일을 비난했다. EU 내 극우정치세력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의 난민 수용을 밀어붙이고 있어 EU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설사 메르켈 총리의 주장이 관철돼 난민 유입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IS의 유럽 테러 문제다.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섞여 IS의 테러리스트가 침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난민 수용을 촉구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인정할 정도다. 최근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인해 IS의 테러는 EU 국가들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삼성물산 합병 불법성 조사"

삼성생명 압력 의혹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자산운용사에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진행된 계열사 개입과 임직원 동원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표결하도록 압력 넣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내지 유보 등을 하던 기관들이 전부 찬성한 것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자산운용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여러 자산운용사에 고객 돈을 맡긴 삼성생명이 '갑(甲)'의 위치를 이용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244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5일 국감에서 "상황을 파악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을 상대로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권유한 것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Audi's electric car covers 500km with 15 minutes of charge… what about Korea?

아우디 전기차 15분 충전에 500km 주행… 한국은?



Electric car industry is advancing at a fast pace in global market.

Korean cars can only cover about 100km on a single charge which does not even cover a round trip from Seoul to Busan whereas Audi developed a car that covers 500km on a single charge. Electric cars are unpopular in Korea due to the shorter driving distance compared to diesel and gasoline cars and a lack of recharging stations.

Volkswagen, a global leading company in electric car industry, presented a vision of electric cars that cover a long driving distance and a fast charge.

Audi, a luxurious brand of Volkswagen, held an auto show at 7:30 on the 14th in Frankfurt arena in Frankfurt. Martin Winterkorn, the chairman of Volkswagen, said that the company will focus on Electric vehicle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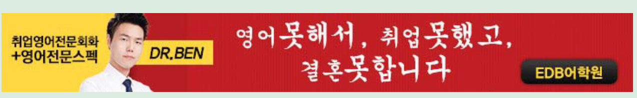
It only takes 15minutes to fully charge Audi's electric SUV 'E-Tron Quattro' and it covers more than 500km on a single charge. Winterkorn, also, said "he is planning to develop more than 20 models of EV and PHEV and release them in the market".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아우디는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을 가는 차량을 개발한 반면 한국 전기차는 1회 충전 후 갈 수 있는 거리가 100여km 안팎에 불과해 부산-서울간 왕복도 안된다. 휘발유·경유 차보다 주행 가능 거리가 훨씬 짧은데다 충전시설도 찾기 어려워 외면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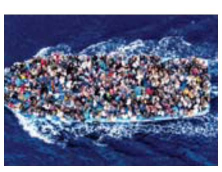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폭스바겐그룹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이 아주 빠른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는 14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라포트아레나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우디가 내놓은 전기차 SUV 'e-트론 콰트로'의 배터리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가능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빈터콘 회장은 "2020년까지 EV와 PHEV 모델 20종 이상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하나의 유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아닌 **이슬람 난민사태**였다. 국경선이 사라져가던 유럽은 이번 난민 사태로 국경통제에 나서는 국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지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달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여개국 정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유엔은 유럽 난민사태, 북한의 핵실험 위협, 중동 분쟁 등 세계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을 안은 채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정치·사회



▲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달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노무현계(비노)의 보이콧 속에 '박수'로 통과됐다. 비노 측은 그동안의 요란했던 비판이 무색하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국감 준비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매달 월급의 20%을 기부하기로 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 주거비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비 투자**가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네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곳곳에서 성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백로와 코스모스 곳곳에 활짝 핀 코스모스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16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서시천에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운데 백로떼가 물가에서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국내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프리미엄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디자인과 핵심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옵티머스 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LG전자가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삼성전자**의 '2015년형 SUHD TV'와 '액티브워시 세탁기'가 16일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올해의 녹색상품' 시상식에서 '소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 상을 수상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자산운용사에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한국신용평가**는 15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1조4천억원 규모의 차입금 대부분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15일 권고했다.

▲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하락을 거듭하던 현대차, 기아차 등의 **자동차주**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CJ그룹**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만4000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CJ그룹은 16일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감한 인력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며 이 같은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더 비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8월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수도권 1291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155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됐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 롯데그룹 순환출자 해소, 조세포탈 의혹, 향후 기업 발전 방향, 롯데 국적 논란 등의 질문을 쏟아낼 예정이다.

네이버·다음카카오, 새누리당 토론회 보이콧

"집권여당 무시" 새누리 당혹
김무성 "악마의 편집" 맹비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정책토론회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호출에 불응하자 김 대표는 축사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연합뉴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감 준비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토론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국감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려던 새누리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접 토론회 준비를 지시한 김무성 대표는 '악마의 편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6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포털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는 논란의 발단이 됐던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최형우 서강대 교수,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을 대변하는 한국신문협회의 허승호 사무총장,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정환 미디어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김 대표는 축사를 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포털을 향해 "의도했든 안 했든 중립적 정보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포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약 15조원, 다음카카오는 10조원대 대기업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는 김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이재영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당내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당 관계자는 "정말 황당하다. 집권여당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공적인 행사에 참석을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포털 측의 불참으로 토론회는 포털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최 교수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표현에 비의도적이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범여권에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분석으로 포털이 특정 정당에 편향적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사무총장은 "종이신문과 포털은 불편한 관계다.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라며 "포털이 어떤 원칙으로 뉴스를 노출·배열하는지 알고리즘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 역시 "포털 뉴스 검색결과와 순서배치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반격을 벼르고 있다. 국감에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출석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지만 포털 국감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노동개혁 합의 법제화 위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16일 오후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다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청년일자리 펀드에 2000만원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매달 월급의 20%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은 1억9255만원이었다. 매달 기부액은 약 320만원가량이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펀드 조성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 를 통해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가칭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도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국방부, 수류탄 '다시' 전수조사

폭발위험 수류탄 전량회수
작년 검사때는 '정상' 결론


군부대 수류탄 폭발로 숨진 김원정 상사의 영결식이 15일 오전 국군대구병원에서 열리고 있다. 김 상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11일 대구 신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수류탄 5만5000여 발을 전량 회수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폭발사고 직후 이번 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로트 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동일한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5만5000여 발의 수류탄 중 약 1000발은 폭발시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나머지 약 5만4000발은 신관을 본체와 분리해 비파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파괴검사는 엑스레이 등을 활용해 수류탄을 폭발시키지 않은 채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류탄은 2005년 생산된 '경량화 세열 수류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병대 훈련장에서 폭발한 수류탄도 이번 사고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수류탄 5만5000여 발 가운데 2020발을 표본으로 추출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전량 회수로 방침을 바꿨다. 또 대구 신병훈련장 폭발사고의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다른 나머지 수류탄들에 대해서도 로트 번호별로 표본을 추출해 비파괴검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량 회수한 이들 수류탄을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향후 완성탄 폭파 시험 등에 활용하고 일선 부대에는 다른 수류탄을 교체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수류탄도 과거보다 2배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안전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보장된 다음에야 사용 중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안, 非盧 집단퇴장에도 통과

최고위 폐지 안건 '만장일치' 공천혁신안 박수로 통과돼 비주류 요란했던 비판 무색

문재인 '재신임' 강행의지



승자의 미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혁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달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노무현계(비노)의 보이콧 속에 '박수'로 통과됐다. 비노 측은 그동안의 요란했던 비판이 무색하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께 전체 재적위원 576명 중 의결정족수인 289명을 넘어 318명이 참석하자 시작됐다.

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비노를 향해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국민경선과 관련해 "이유가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비노 측은 거센 비판 발언과 집단퇴장으로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회의가 언론 대상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공지되자 일어서서 모든 절차를 공개하라고 소리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 제안이 다시 나오자 "예"라는 큰소리가 울렸다.

비노 측이 요구해 온 무기명 투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비노 측은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했다. 이들이 퇴장한 뒤 첫 번째 안건인 최고위 폐지 안건은 거수투표를 통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대 417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이때 371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음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최대 쟁점인 공천혁신안은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줘 감사드린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당 내부를 망라하는 통합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혁신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중앙위에서 무력함을 보인 비노 측은 단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쳤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먹먹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틀을 잡은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 속에 무너졌다"며 "어떤 분은 3김시대 이후 종말을 고한 제왕적 총재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중앙위 결정을 계기로 일방적인 독주에 나서면 용납하지 않겠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 성격이 사실상 대표의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불참했지만 역시 문 대표에 맞설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문 대표는 중앙위 이후 비노 측의 연기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신임은 남아있다"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만 남았다

윤리특위서 제명안 통과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 징계소위원장(왼쪽)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송병형 기자

與, 박원순 겨냥 '서울역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 주장

윤영석 "공원 설치땐 주변 교차로 통과시간 2배 증가"

새누리당이 16일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역 고가도로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영향 기술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고가공원이 설치될 경우 주변 교차로의 평균 통과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국감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당협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무기한 저지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과 국가유관기관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왜 꼭 대선이 있는 2017년에 맞춰 완공하겠다는 것이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야망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아집으로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법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박 시장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지체없이 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박 시장은 위법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외교관 자녀 152명이 이중국적자

89%인 135명이 美국적

외교관 자녀 가운데 152명이 이중국적자로, 이 가운데 약 89%인 135명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올해 8월 기준 총 152명(11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청와대의 발표 당시보다 이중국적자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당시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들을 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다.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檢, '포스코 수사' 9부 능선 넘나

정준양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시기 조율'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네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끝으로 16일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 정권 실세들의 줄소환이 예정된 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19일까지 자리를 비워 중요한 결정이 어려운만큼 영장 청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성과를 보이고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7개월 여를 끌어온 포스코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을 거란 얘기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 전 의원과 이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3일과 9, 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한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 같은 전방위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가 한창이다.

수사에 동력이 확보되면서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 전 의원 소환,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성큼 다가온 가을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코스모스 둘레길에서 주민들이 양산을 쓴 채 꽃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중 항의에 멈추고 사과… 法 "강간 아냐"

모텔서 고성·몸싸움없고 사건 후에 함께 시간보내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저소득층의 2.6배

주거 부담 따라 큰폭 차이

주거비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비 투자가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포커스 최근호의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박종서 부연구위원)을 보면, 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는 2010년부터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998~2014년에 주거비 지출 비중이 계속 상승한 결과다.

갈수록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저소득층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해석했다.

반면에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는 1998년 이후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2000년 이후부터는 줄곧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1998~2014년에 소득 1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정점이 이른 때는 2011년으로 29만2000원을 교육비로 썼다.

같은 기간에 소득 5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으로 지출액은 무려 63만2000원에 달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상위소득 가구는 하위소득 가구보다 교육비를 2.8배나 더 지출했다. 2014년에는 고소득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저소득 가구의 2.6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14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를 따로 뽑아내 분석한 결과다.

자녀 수에 따라 가구별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층 가구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이어도 자녀 수가 2명일 때보다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자녀 수가 늘어도 교육비를 늘리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교육비 비중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규범화되었고 실제로 가족은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가족의 자녀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소득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法 "화내다 얼굴에 튄 커피… 폭행죄"

법원이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올해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였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자신의 손으로 쳤다.

그러자 머그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다행히 커피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사 교과서 국정화' 뜨거운 찬반 논란

곳곳서 성명·시위 잇따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곳곳에서 성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고려대 역사계열·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수 160명은 16일 오전 서울 캠퍼스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12일 결정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국정보다 검인정·자유발행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국사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교수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 극소수 특수한 국가만 시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육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획일화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이날 낮 12시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9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국사 국정화를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과거 한국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으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껴왔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 식을 전하려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동아일보사 앞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서명운동에 참여해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 방침 지지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서경석 목사를 공동대표로 출범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 동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판되는 7종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은 계급투쟁 사관으로 기술된 반(反)대한민국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이념적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면 역사 교과서를 정부 책임 아래 국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도 이날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나선 서울대 역사 교수들은 좌편향됐다"며 이 교수들이 사퇴하고 강의도 폐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 역사관련 교수 34명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추석 상여금 3만원이 웬 말? 10만원 지급하라!" 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인근에서 여성연맹·전국민주여성노조 주최로 열린 '직접고용 쟁취 삭발식 및 투쟁대회'에서 지하철 미화원들이 추석 상여금 10만원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추미애 모욕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네티즌 이모(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새민련 여자 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에 다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씨는 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월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연미란 기자

'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

악용됐던 의원면직 제동

각종 비리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신의 의지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은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공무원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꼽혀 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 규범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비위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이 같은 징계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법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되거나 검찰 등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동조 제2항은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은 잃었지만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달엔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 향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미란 기자

'방산비리' 김양 "고위층 로비없었다"

한민구 국방장관 증인신청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고위층에 로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싶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또 와일드캣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했다. 다만, 재판부는 AW 관계자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연미란 기자

1~2년후의 예상수익은 필요없다! 10년간 임대완료!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1 왜? 아직도 1년후의 예상수익에 투자하시나요?

2 왜? 아직도 터무니없이 비싼 고분양가에 투자하시나요?

삼성·LG·미군부대가 선택한 평택이 뜬다

CO'OP stay hotel PYEONGTAEK PORT

실투자금 2100 만원이면

10년간 월 74만원이 내 통장으로 '쏙쏙'

[3년치 임대료 2,680만원 선지급(한정호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확정수익률 13%	계약즉시 확정수익금 지급 〈 잔금완납시 〉	실투자금 2,100만원	10년 임대차계약서 발행	강남 21분 KTX 신평택역 〈 개통예정 〉	계약자 연 7일 무료사용

평택에서도 독보적인 투자상품!

지금 평택 코업레지던스-호텔을 홍보관에서 만나십시오!

| 미래가치 | 동북아 비즈니스의 최전방 요충지, 중국과의 최단거리 교역항, 수출물량 상승률 전국 1위의 평택항

| 투자가치 | 연 평균 500여만명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100조 규모 삼성 고덕산업단지, 60조 LG 진위 산업단지

| 호텔가치 | 바다조권망 확보, 고품격 마감재 사용, 고품격 실내공간, 장기투숙객 위한 객실별 취사 및 세탁 가능

| 교통가치 | KTX 신평택역 개통예정으로 강남18분, 서해안 제 1·2고속도로 및 경부,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

모델하우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2-41 서희 스타힐스 1F



청약계좌	하나은행 102-910040-86204 금액 :100만원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환불됩니다. 예금주 : 하나자신신탁
문의 (지방출장 상담 가능)	02.6490.7566

| 시행·시공사 | (주)동우종합건설 | 자금관리대리사무사 | 하나자산신탁 | 호텔운영지원 | CO'OP 코업 C&C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5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내용중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은 각개발주체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연간수익 및 수익률은 향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벤츠 vs 아우디, 獨 안방서 자존심 대결

벤츠, 가장 큰 규모의 부스 마련
아우디, 신모델·전기차 집중전략





IAA 메르세데스-벤츠 부스에 몰린 수많은 관람객(왼쪽). 아고라 건물에 있는 아우디 부스. /사진=이정필 기자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열리고 있는 독일 메세 프라포트아레나에서 자국 완성차업체들의 경쟁이 팽배하고 있다.

안방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 모터쇼인 만큼 전세계 시장의 이목을 자사에 집중시킨다는 전략이다.

15일(현지시간) IAA 언론공개 행사에 가보니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한 건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는 행사장 2번에 위치한 페스트홀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용한다. 3층 규모의 건물에는 벤츠와 스마트 차량을 전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발표회에는 각국에서 모인 인파로 건물 전체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뤘다.

발표시간은 통상 다른 브랜드들이 15분 내외로 설정한 것과 달리 무려 45분간이나 진행했다.

도중에 다른 부스로의 이동을 막으려는 계산에서인지, 발표회 내내 각층의 비상구를 모두 막아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아우디는 벤츠 전시장 바로 옆 아고라 건물에 부스를 차렸다.

발표시간 역시 벤츠 바로 다음인 오전 10시 30분부터로 잡아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2층 건물로 벤츠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신모델과 특히 전기자동차 이트론 콰트로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다.

15분간의 발표시간 대부분을 이트론 기술 소개에 할애했다.

아우디를 제외한 폭스바겐그룹 산하 브랜드들은 전날 그룹 행사를 진행한 만큼, 모터쇼에서는 비교적 작은 각각의 부스를 설치했다.

폭스바겐과 포르쉐, 벤틀리, 스코다, 세아트, 부가티, 람보르기니 등 업체는 3번 홀에 한데모여 기지를 차렸다.

벤츠와 폭스바겐그룹이 전시회 입구 인근에 부스를 설치한 것과 달리, BMW그룹은 행사장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BMW와 미니, 롤스로이스 부스가 있는 곳은 마지막 11번 홀이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출혈경쟁을 벌이느니, 돌아다니느라 지친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구경하게 하는 것도 좋을 듯했다.

실제 BMW그룹 전시관 내에는 발표회장 내 계단식 벤치와 곳곳에 의자를 설치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부스는 시각적인 인테리어와 시종일관 돌아다니는 차량 등을 통해, 경쟁사에 비해 젊은 감각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독일 브랜드와 비교하면 작지만 내실 있는 부스 운용으로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

현대차는 전시장 중간 지점인 6번 홀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6번 홀에는 알파로메오와 페라리 부스가 함께 위치해 있다.

기아차와 쌍용차는 BMW그룹 부스 맞은편 9번 홀에 나란히 기지를 차렸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는 직접 발표를 맡아 티볼리의 성공적인 판매현황을 어필하는 한편, 콘셉트카를 자신 있게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프랑크푸르트(독일)=이정필 기자 roman@



15~17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고 있는 '솔라 파워 인터내셔널'의 삼성SDI 부스. /삼성SDI 제공

삼성SDI, 북미서 ESS 'Mega E' 공개

전기차용 배터리로 사용
에너지 밀도 75% 향상돼

삼성SDI는 15~17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전시회 '솔라 파워 인터내셔널'에 참가해 자사 제품과 기술력을 뽐낸다.

솔라 파워 인터내셔널에는 600여개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 참가한다. 관람객은 1만5000여명이 모인다.

삼성SDI는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셀 단위 제품부터 모듈·랙 등 에너지저장 시스템 전반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SDI의 ESS는 BMW, 아우디, FCA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용 배터리로 쓰인다.

이번에 공개된 MW급인 'Mega E' 플랫폼은 고밀도 셀 적용을 통해 에너지 밀도가 75% 가량 향상됐고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신모델은 UPS용 듀얼랙이다.

UPS용 납축전지를 대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이다. 이는 양방향 설치가 가능하고 메탈 대신 플라스틱 모듈을 사용해 가볍고 설치가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SDI는 '48V 트레이',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용 '듀얼타입 랙' 등도 선보였다.

김우찬 삼성SDI 중대형전지사업부 ESS사업팀장 전무는 "IT(정보기술)와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이번 ESS 신모델 라인업에 대한 현지 고객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차 "N브랜드 첫 고성능 차, 2017년 출시"

IAA서 개발 방향성 공개



알베르트 비어만 현대차 부사장.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차가 2017년 출시될 전망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고성능 브랜드 N의 개발을 총괄하는 알베르트 비어만 부사장은 전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 "2017년에 첫 'N' 모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의 개발 방향성을 공개했다.

비어만 부사장은 현대차의 연구개발기지인 남양연구소에서 고성능차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현대차는 N 브랜드 차가 주행성능 테스트센터인 뉘르부르크링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뉘르부르크링에는 급커브구간, 언덕길, 내리막길 등 혹독한 주행성능 시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주행조건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어만 부사장은 "현대차는 유럽에서 편안하고, 상품성이 높고, 세련되며, 디자인이 좋은 차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가기 위해 서브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 브랜드를 어느 차종에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며 "지금 고성능차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기자

아시아나항공, 中 지난서 '아름다운 교실' 자매결연



16일 루치아오 소학에서 안병석 아시아나 중국지역본부장(왼쪽 둘째), 이수존 주칭다오 총영사(왼쪽 셋째), 경 지안신 지난시 부비서장(왼쪽 넷째)이 자매결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아시아나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16일 중국 루치아오 소학과 '아름다운 교실' 자매결연 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석 아시아나 중국지역본부장, 이수존 주칭다오 총영사, 경 지안신 지난시 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루치아오 소학 학생들에게 교육용 에어컨 9대, 컴퓨터 10대, 정수시설 1개소, 크레파스 200개 등을 전달했다.

아시아나 승무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특강도 진행했다.

직업특강에 참여한 저우 잉 학생은 "항공사 근무가 꿈인데 승무원의 강의를 듣게 돼 도움이 됐다"며 "열심히 노력해 승무원으로서 멋지게 하늘을 누비고 싶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는 중국 내 지원이 필요한 학교 학생들을 후원함으로써 중국 어린이와 청년들의 꿈을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글로벌 사회공헌을 통한 한-중 민간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삼성 사장단 "우리 자매마을 농산품이 최고"

행복나눔 직거래장터서 일일점장 변신 판촉 활동

삼성그룹 사장단이 관계사의 자매마을 농산품 홍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삼성장단은 16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 딜라이트 광장에 마련된 '삼성과 자매마을이 함께 하는 행복나눔 추석 직거래장터'에서 판촉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수요사장단회의를 마친 사장들은 각 계열사의 자매마을 부스에서 삼성 로고가 새겨진 푸른색 조끼를 입고 일일 점장으로 변신했다.

경북 구미시 도개면 매장에 자리잡은 '미스터 갤럭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은 직접 시식용 불고기 굽고,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등 적극적로 자매마을의 특산품을 홍보했다. 이어 신 사장은 직거래 장터에서 쌀 86만원어치와 쿠키세트, 천연비누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도 삼성그룹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글로벌투게더에서 점장으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전량 판매, 제고 제로"라는 판매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은 직거래장터 의의에 대해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뭉치면 뭐라도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최 부회장은 "사과, 배, 고기 등을 사서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하라"고 삼성관계자에게 지시했다.

한편 15~1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삼성 8개 계열사의 21개 자매마을이 참여해 과일과 한우 등 50여종의 우리 특산물을 판매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순창군도 참가해 고추장, 복분자주, 블루베리즙 등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했다

고남숙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순창군의 농산물 판매가 감소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삼성은 서초사옥 직거래장터뿐 만 아니라 17개 계열사의 전국 26개 사업장에서 123개 자매마을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25일까지 운영한다. 세종대로에 본사를 둔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6개 계열사도 15~16일 삼성본관에서 15개 자매마을이 참여해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삼성은 1995년 농어촌 60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는 604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돕기, 농촌체험,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신종균 삼성전자 IM 부문장 사장이 16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딜라이트 광장에서 열린 '삼성과 자매마을이 함께 하는 행복나눔 추석 직거래장터'에서 방문객들에게 사과를 권하고 있다. /삼성 제공

LG, 중저가 스마트폰 명성 회복 노린다

디자인·핵심기능 업그레이드 21일 보급형 메탈폰 출시 예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프리미엄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디자인과 핵심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옵티머스 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LG전자가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프리미엄 제품과 비슷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중저가 제품에 대한 소비들의 관심이 늘어났다"며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800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그 중 프리미엄은 600만대, 중저가는 1200만대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단독 출시한 실속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루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루나는 출시 보름 만에 초도물량이 판매됐으며 하루 200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 출고가는 44만 9900원이며 스펙은 2.5GHz 쿼드코어, 5.5인치 디스플레이, 3GB램, 32GB(16GB 내장+16GB SD카드 제공) 메모리, 배터리 2900mAh(일체형) 등을 장착했다.



LG전자도 21일 시장 트랜드를 반영해 보급형 메탈 스마트폰(사진)을 출시한다. LG전자는 16일 자사 페이스북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를 암시하는 이미지 광고물을 올렸다. 'Something New, Sep. 21'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품 뒷면만 공개된 이미지인데, 알루미늄으로 추정되는 메탈바디에 얇은 두께가 눈에 띈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상징과도 같은 후면 키도 그대로 적용됐다. 출시일은 티저에도 적혔듯 21일로 예정됐다. 출고가는 중저가 스마트폰 루나(44만9000원)와 삼성전자 갤럭시 A5(48만4000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LG전자는 10월 슈퍼폰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LG전자는 10월 1일 서울과 미국 뉴욕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 지난 2010년 옵티머스 원으로 출시 60일 만에 전 세계 200만대 이상의 판매를 올린 LG전자가 올 하반기 공략 제품으로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D, 중국 OLED 시장 공략 가속도

중서 '올레드 파트너스 데이' 유통업체 등과 상호협력 다져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TV 시장인 중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16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르네상스 캐피털 호텔에서 '올레드 파트너스 데이(OLED Partner's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스카이워스, 콩카(Konka), 창홍(Changhong), 하이얼(Haier), TPV 등 6개 TV 제조업체와 중국 양대 유통업체인 수닝, 고메 등을 포함한 4개 유통업체, 시장협회, 전자상회, 중국전자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와 참석업체들은 중국 OLED 시장의 빠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SUHD TV·액티브워시 '올해의 녹색상품'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설계·재활용·폐기 체크 소비자 직접평가로 선정



삼성전자의 '2015년형 SUHD TV'(사진)와 '액티브워시 세탁기'가 16일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올해의 녹색상품' 시상식에서 '소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 상을 수상했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매년 제품의 환경성과 상품성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선정한다. 삼성전자 '55형 SUHD TV JS9000'와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폐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됐다.

삼성 SUHD TV는 유해물질인 카드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카드뮴 프리 나노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5년 이상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특허만 150건 이상을 획득했고, 미국 'UL'로부터 친환경 제품 인증(SPC)을 받았다.

또 삼성 SUHD TV는 '에코센서'와 '절전모드' 등 다양한 에너지 저감 솔루션을 활용해 소비전력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고, 액세서리 박스와 사용자 매뉴얼 등을 100% 재생지로 제작했다.

애벌빨래부터 탈수까지 한 자리에서 편하고 깨끗하게 빨래를 할 수 있는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석면·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제거한 소재를 사용했다. 고효율 모터를 탑재해 세탁효율을 기존보다 20%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으며, 애벌빨래 후 사용한 물을 저장해서 본 세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물과 세제의 낭비를 최소화 했다.

또 녹색 기술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수축포장을 적용해 포장중량을 50% 줄이고, 제품의 분해성을 높이고 플라스틱 제품의 100% 재질 표기로 재활용성을 향상시켰다. /조한진 기자

딥러닝·지능 로봇… 인공지능이 그리는 미래

SKT, '인공지능 시대 기술 진화 방향' 포럼 개최

SK텔레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6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진화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SK텔레콤은 IBM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관련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개발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내외 로보틱스와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동향을 논의하고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 러닝'(Deep Learning)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예측이 가능해져 인공지능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식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유튜브 상의 강아지와 고양이도 구분하지 못하던 인공지능 기술이 '딥 러닝' 기술을 맞이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컴퓨터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물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신경망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확보된 데이터의 속성을 분석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성인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CHARLI), 인공 근육을 탑재한 화재 진압 로봇 '사파이어'(SAFFiR) 등을 소개했다.



1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진화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사내 직원이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IBM은 2011년 미국의 한 퀴즈쇼에 출전해 역대 우승자 2명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자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Watson)을 들고 왔다.

외부 전시장에는 SK텔레콤의 사이버 개인 비서 서비스인 '비-미(BE-ME) 플랫폼'과 아트센터 나비의 다양한 감성 로봇들이 진열돼 눈길을 끌었다.

2012년 인공지능 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에 착수한 SK텔레콤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대표적 상생 공간인 'T오픈랩'과 연계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은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미 플랫폼 등 개인화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스마트폰과 다양한 기기를 결합해 고객의 생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16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사내 모델들이 KT뮤직의 후불 요금제 '알뜰 음악감상'과 IT기반 라이프 음악 서비스 '지니 라이프'를 선보이고 있다. /KT 제공

KT뮤직, 후불제 음원서비스 첫 도입

합리적 요금, 시장 규모 커질 것

KT뮤직이 국내 최초로 음악을 듣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를 16일부터 도입했다. 기존 정액요금제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고객까지 끌어들여 음악서비스 시장을 더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KT뮤직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화된 디지털 음악이용 트렌드를 반영한 후불 음악감상 요금제와 IT기반의 라이프 음악서비스를 발표했다.

후불 요금제는 월 기본료 100원에 한 곡을 들을 때마다 1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종량제 방식이다. 스트리밍 한 곡당 음악감상 가격이 12원이지만 2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고객이 음악사용 패턴과 사용량을 고려, 상품을 선택해 합리적 음악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김성욱 KT뮤직 대표는 이날 "음원 이용자 패턴이 스트리밍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디지털 음원 서비스는 10년째 선불 정액제로 판매되고 있다"며 "고객이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600만~700만명에 이르는 기존 유료 시장 잠식 없이 미사용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후불 요금제로 합리적인 음원 사용이 늘어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T뮤직은 이날 사용자 생활 리듬에 맞춰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니 라이프'도 선보였다. 위치와 날씨, 심장박동수, 운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장준영 KT뮤직 플랫폼사업본부장은 "고객 PC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IPTV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다음카카오 '스토리채널' 방문 17억회 돌파

개인 콘텐츠 전파 정보형 마케팅 플랫폼으로 인기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의 구독 기반 공개형 카카오스토리 '스토리채널'의 이용자 방문 횟수가 서비스 1년 만에 17억회를 돌파했다.

다음카카오는 16일 스토리채널 서비스 출시 1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스토리채널은 개인 혹은 사업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서 각종 관심사 기반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9월 16일 선보였다.

지난 1년간 카카오스토리 이용자는 스토리채널에 총 17억5000만회 방문해 2억3300만회의 '소식받기'를 했다. 느낌이나 공유, 댓글 등의 활동으로 소통한 경우도 하루 평균 167만회에 달했다.

이 기간에는 총 54만개의 채널이 개설됐으며 1448만개의 스토리가 발행됐다. 단순히 환산하면 매일 4만개, 매시간 평균 1658건의 글이 발행된 것이다.

이용자의 공감을 이끌어낸 콘텐츠를 발행한 스토리채널은 팬층이 쌓이고 유명해지면서 누적된 콘텐츠가 단행본으로 묶여 재생산되기도 했다.

그림 에세이로 출간된 '딸바보가 그렸어' '불량아빠 유부일기' 등의 콘텐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스토리채널은 모바일에서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플랫폼이자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만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스토리채널은 카카오스토리 이용자들이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U+·노키아 기술 협력, 5G 시대 '성큼'

LG유플러스가 차세대 플랫폼 가상화 기지국 기술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018년 5G 상용화에 맞춰 1개의 DU(Digital Unit)에 4G RRH(Remote Radio Head)와 5G RRH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핀란드 헬싱키 노키아 본사에서 시연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제조사 노키아와 함께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기술(vRAN)로 국내 최초 범용 IT 서버에 상용 기지국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용 단말로 주파수 묶음 기술(CA) 최대 속도 확인과 기지국의 가상화된 기능들이 자원 사용률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및 구성되는 기능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vRAN은 네트워크 기지국에 IT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로, 기지국 별로 이뤄지던 데이터 관리 기능을 중앙에 집중해 가상화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통합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LG유플러스는 5G RRH 개발이 완료되면 5G가 없는 곳에서는 4G로 끊김 없는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중접속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문경 기자

자동차株 '원화 약세' 수혜주 등극

판매량 감소 우려에도 수출 경쟁력 증가에 실적 기대감↑



자동차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주는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하락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고,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일 대비 각각 4.15%(6500원) 오른 16만3000원, 2.12%(1100원) 상승한 5만29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모비스도 2.58%(5500원) 올라 21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현대글로비스(4.43%), 현대위아(3.72%), 쌍용차(1.78%) 등 자동차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이들 자동차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된 탓에 지난 7월 중순까지 오랜 침체를 이어왔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월17일 종가기준 현대차는 26.92% 하락했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22.94%, 21.39% 뒷걸음질 쳤다.

지난 7월17일 연저점을 확인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 특히 지난 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12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6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7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수록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를 더 크게 점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7월17일 이후 현재까지 현대차는 31.98% 올랐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29.03%, 18.05% 상승해 올 들어 반납한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8월 유럽 시장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 자동차주의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는 2만8000대, 기아차는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10%의 판매 상승률을 보였다"며 "올 들어 8월까지 유럽시장의 누적 판매는 전년보다 9% 증가한 938만3000대로, 경기회복세와 함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유럽에서 전년 대비 7% 늘어난 139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수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중국에서의 신차 출시와 가격 인하 등으로 판매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및 가격경쟁력 회복 등으로 점진적인 주가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다.

김평모 동부증권 연구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 감소에도 하반기 자동차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목표주가를 각각 21만원과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권선주 기업은행장,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평택 안중시장 지원 권선주 기업은행장(오른쪽 두 번째)이 추석을 앞둔 1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안중시장을 방문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 번째) 등과 둘러보고 있다. 이날 기업은행은 후원금 1500만원을 구세군에 전달했다. 구세군은 후원금으로 안중시장에서 물품을 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제공

주택청약저축 금리 4개월 만에 또 내려

기준금리 인하 반영

한은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4개월 만에 또다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연 1.2%, '2년 미만' 1.7%, '2년 이상' 2.2%로 떨어진다. 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5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리고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것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공시한 정기예금(2~4년) 평균 금리는 5월 1.87%에서 6월 1.82%, 7월 1.7%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후에는 1.5~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국민銀, 장기거래 우대프로그램 진행

KB국민은행은 장기거래 우수고객에게 금리와 환율 우대 혜택을 주는 '2015년 KB 평생사랑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혜택 대상은 올해로 거래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맞는 KB스타클럽 고객이다.

행사기간중 고객이 국민 수퍼정기예금 등 3종의 예·적금과 KB 국민행복신용대출 등 6종의 신용대출에 가입하면 최대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 한도는 정기예금의 경우 5천만원까지다.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등 외화를 매매할 때 70%의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차기태 기자

증권 마감시황

외국인 30일 만에 '귀환'

코스피 1970선 회복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온 국내 증시가 16일 큰 폭으로 상승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7.89포인트(1.96%) 오른 1975.45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30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 2167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574억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만 5923억원을 내던졌다.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에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상향 조정한 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건설(3.88%), 증권(3.66%), 운수장비(3.42%) 등 모든 업종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상승 종목이 우세했다. 삼성전자(1.25%), 현대차(2.24%), 한국전력(1.64%), 삼성물산(1.84%) 등이 올랐고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 재추진 기대감에 따라 각각 18.6%, 11.25% 급등했다. 반면 효성(-2.02%), 동부화재(-1.36%), 롯데쇼핑(-0.18%)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9.73포인트(1.46%) 오른 676.48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1억원, 21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 섬유의류, 정보기기 등 3개 업종만이 약보합 마감했다. 반면 인터넷, 종이목재, 출판매체복제, 통신서비스 등이 2%대 상승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선 아프리카TV가 12%로 급등했고, 셀바이오텍(9.02%)도 크게 올랐다. 특히 핀테크주 가운데 한국전자인증(29.9%)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민앤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금융 등 핀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김보배 기자



16일 코스피가 1.96% 오른 1975.45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알짜 펀드만 쏙쏙’ 똑똑한 투자상품 주목

현대증권

‘현대able 알짜 펀드랩’ 안정적·고수익 추구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이 유망한 투자 대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현대증권은 유망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객에게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제공하는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알아서 유망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기본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개별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4개와 유럽, 중국관련 펀드 각 1개 등 총 6개 국내외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또한 현대증권의 추천 펀드군 중에서 국내외 시장전망과 분석을 통해 가려낸 유망한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현대증권의 각 부서별 전문가 그룹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우선 투자컨설팅센터의 국내외 시황전망 및 분석을 통한 유망지역을 선정, 상품전략부에서 펀드성과 및 매니저 미팅 등을 통해 유망펀드를 선정한다. 이후 고객자산운용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거친 펀드 포트폴리오를 랩운용부에서 운용, 관리하는 구조다.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투자과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시장점검 및 자산별 운용상황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문가에 투자를 일임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은행예금보다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접투자 방식이 아닌 전문가에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펀드 종류가 다양해지고 투자범위도 넓어져 이마저도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글로벌 주요국의 부양정책 강도가 각기 다르고 경기회복 속도도 제각각이어서 어느 국가, 어느 섹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투자성격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며 “개인투자자 혼자서 일일이 분석하고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펀드로 분산투자하는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을 출시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고, 가입기간은 2년이다. 수수료는 연 0.2%(분기후취, 편입자산 보수 별도)다.

상품가입 및 상세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국 영업점과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대우조선, 1조원 이상 출자전환 필요”

한신평, 경영정상화 조치 권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신용평가는 15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1조4천억원 규모의 차입금 대부분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15일 권고했다.

한신평은 이날 오후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점검’ 세미나에서 “대우조선이 1조원 규모의 현금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폭의 부채비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차입금은 6월 말 현재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의 순손실을 5천억원으로 가정할 때 1조원의 유상증자와 5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면 부채비율이 424%로 개선된다. 출자전환이 1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면 부채비율은 333%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3천억원의 공모사채와 1150억원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해야 하는데다 내년에 7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온다.

홍석준 수석애널리스트는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으로 영업부문의 잉여현금 창출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은행권의 차입금 만기 연장과 일부 자산을 매각해도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와 CP 상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이 현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추가부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 확충과 현금 유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상당 폭의 추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신평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나머지 대형 조선사들도 당분간 영업 및 재무 개선이 쉽지 않다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당분간 유동성 보강이 필요하며 기업어음(CP) 비중이 높은 현대삼호중공업은 차입구조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신평은 밝혔다.

/차기태 기자 folium@

한화생명 ‘핀테크’ 활용해 고객 편의 극대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골절로 입원했던 고객이 퇴원한다고 해 병원을 찾았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태블릿PC로 촬영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서류 이미지가 본사 심사담당자에게 배정된다. 고객과 보험 관련 상담을 시작한지 30분도 채 안 돼 고객 휴대폰으로 ‘보험금 지급 완료’ 문자가 온다.

주말 오후, 고객이 보장금액을 상향할 경우의 보험료를 물어 왔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가입설계를 다시 뽑아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태블릿PC로 간단하게 확인, 고객 이메일로 재설계한 가입안내서를 발송했다.

요즘 한화생명 재무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들의 모습이다. 핀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험업계에도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시스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2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전자청약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핀테크’를 접목한 전자청약 결제 시스템을 보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태블릿PC로 보험 설계부터 가입, 청구까지 간편하게 처리해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사진은 FP가 태블릿PC로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 /한화생명 제공

박영숙 신성지점 영업팀장은 본인계약의 70%를 전자청약으로 체결 중이다. 이전에는 1명의 고객을 만날 때 많게는 100장 가까운 서류를 출력해 가야 했지만 현재는 태블릿PC 하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고객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박 팀장은 “지난해부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오프라인 청약절차를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놓은 듯 자연스러워져 현재는 청약서 용지를 거의 쓸 일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청약은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전자서명은 본인 인증이 필수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T기술과 금융의 접목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대폭 개선됐다.

특히 보험금 청구서류는 전송과 동시에 심사 담당자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험금지급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서류를 FP가 직접 영업점에 제출하고 사무직원이 이를 스캐닝해야 처리가 이뤄져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말 15%에 불과하던 전자청약 체결율이 현재 40%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다”며 “올해 5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가능한 ‘스마트한 모바일 영업환경 구축’을 위해 핀테크를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R석 공연티켓 1+1 판매중

인터파크 티켓에서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R석 티켓 1장 구입시 1장 무료!

(소진시 행사 종료, 1인 유료티켓 2매까지 구입가능)

1+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WOLFGANG AMADEUS MOZART

DIE ZAUBERFLÖTE

타미노 나승서 **파미나** 박미자 **밤의여왕** 오미선

파파게노 김동섭 **자라스트로** 장영근 **파파게나** 김문희

모노스타토스 김동섭 1st 시녀 김윤지 2nd 시녀 이미선 3rd 시녀 류현수

변사 김대엽 1st 무사 최경일 2nd 무사 김준한 천사 이민지 신소연 안지혜

지휘 서희태 **연출** 이의주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메트오페라합창단

2015. 9. 19(토) 7:30PM / 9. 20(일) 5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빙그레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매매가 넘보는 전세… '깡통전세' 우려

**수도권 1291개 단지 중 12%
전세가율 90% 웃도는 계약
전세금 반환보증 장치 필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매매가 9억7000만원인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전세가 8억6000만원에 나와있다. /연합뉴스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더 비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8월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수도권 1291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155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매매·전세가 모두 이뤄진 405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48건, 경기도는 766개 주택형 중 13%인 98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이었다.

인천은 120개 주택형중 8%인 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전세가율 90% 이상 단지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주택형도 29곳으로 18.7%를 차지했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휴먼시아1단지 전용 59.99㎡는 지난달 전세가 1억7000만원에 계약됐지만 매매가는 최저 1억4924만원에 거래돼 전세가율이 114%에 달했다.

군포시 당정동 대우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3억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데 비해 매매는 2억8850만~3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월까지만해도 2억9000만원~3억원이었지만 7월 이후 물건이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3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매매가격은 지난 6월 3억4500만원까지 팔렸으나 7월에는 3억2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다.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6단지 전용 49.85㎡은 지난달 한 매매 물건이 7902만원에 팔렸으나 전세는 이보다 높은 8000만원에 계약됐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전용 47.40㎡도 매매가 1억8800원에 팔린 반면 전세는 이보다 1200만원 비싼 2억원에 거래됐다.

서울도 매매-전세 시세가 같거나 서로 역전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양 전용 60.06㎡는 지난달 2억7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으나 전세는 1500만원 높은 최고 2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화곡동 세림아파트 전용 21.64㎡는 지난달 매매 거래가 1억5100만~1억5200만원에 이뤄졌고 전세도 최고 1억5200만원에 계약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은빛2단지 전용 59.95㎡는 지난달 매매와 전세가가 모두 2억40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전세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전세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2%, 서울은 70.9%로 1998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전세 시세 역전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전세가율이 80.1%를 기록했고 강서구(77.8%), 동작구(77.4%) 등도 80%를 넘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깡통 전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전세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매매가도 뒷받침되면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계약되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져 매매·전세가 급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선 전세금 반환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포스코건설
송파 지역 첫 수직증축
44가구 늘려 2019년 완공**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788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송파 지역 최초로 진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난 1992년 준공됐으며 지상 13층과 15층 2개동에 전용면적 59㎡와 80㎡ 298가구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까지 지하 3층~지상 18층으로 리모델링해 기존보다 44가구 증가한 342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기존 59㎡ 와 80㎡ 평형은 각각 80㎡·103㎡로 리모델링된다. /박상길 기자

전세난민 "서울서 못살겠다"… 경기 집값 들썩

**김포, 5년 새 인구 42% 늘어
아파트 매매가격 고공행진
1년6개월 만에 6000만원 ↑**


경기도 아파트 전경. /뉴시스

최근 전세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울을 떠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지역 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남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는 1010만3233명으로 2010년(1031만2545명) 대비 2.02%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경기도 인구는 1235만7830명으로 2010년(1178만6622명)보다 4.84% 증가했다.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21.36%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내에서는 2010년 대비 지난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42.78%를 기록한 김포시였으며 ▲광주(19.64%) ▲파주(15.66%) ▲오산(14.27%) ▲남양주(12.78%) 순이었다.

특히 김포는 전국에서 유입된 12만6803명(경기도 내 이동 제외)중 서울에서 무려 6만9968명이 유입됐다. 전국 대비 서울 비율은 55.17%를 차지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값도 함께 상승 곡선을 띠고 있다.

KB국민은행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올해 8월 김포시와 평택시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13.2%, 9%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7% 올랐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는 지난해 1월 2억3900만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8월 3억75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뛰어올랐다.

평택시 비전동 '평택비전동효성백년가약' 전용 84㎡ 매매가도 지난해 1월 2억9250만원에서 올해 8월 3억275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올랐다. /박상길 기자

CJ,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만4000명 정규직 신규채용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만4000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CJ그룹은 16일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감한 인력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며 이 같은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채용계획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해 2배 규모인 24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비롯해 고졸 1600명 등 올해 총 4000명의 신입사원을 뽑게 된다. 2016년에는 4500명, 2017년은 5500 명의 대졸 및 고졸 신입 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CJ그룹은 정규직 신입사원 외에도 향후 3년간 1만6200명을 시간선택제 인턴십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연도별 인턴십 채용인원은 올해 4400명, 2016년 5000명, 2017년 6800명 등이다.

CJ그룹은 외식 및 영화관, 헬스&뷰티 스토어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J그룹 시간제인턴십직원들. /CJ그룹 제공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어치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의 '2013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8명으로 제조업(8.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CJ그룹 관계자는 "서비스 사업의 성장 가속화로 인해 청년 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그룹은 10개 전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300여명을 올해 채용하고, 고용 취약계층 청년들을 교육해 뚜레쥬르 매장 등에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연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CJ그룹 조면제 인사팀 상무는 "현재 CJ제일제당 등 주요 계열사를 필두로 전 계열사에 걸친 임금피크제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임금 피크제를 통한 노동 시장 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신동빈, 오늘 국감장 증인 출석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 회장은 국감을 앞두고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국감 준비에 매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전 내내 서울 소공동 롯데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감 답변 자료 검토와 예행 연습해 몰두했다. 오후에는 '아시안 비즈니스 카운실(ABC) 포럼'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신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경영권 분쟁,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롯데호텔 상장·사외이사 선임·신동빈 회장 사재 출연을 통한 선제적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선·기업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의 개혁 노력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국감 당일인 17일에는 오전 일정을 간략히 마친 후 오후 중에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 롯데그룹 순환출자 해소, 조세 포탈 의혹, 향후 기업 발전 방향, 롯데 국적 논란 등의 질문을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신 회장은 "(국감 출석에) 최대한 협조하고 롯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성실히 준비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는 최근 롯데가 경영권 분쟁으로 반(反)재벌 여론이 롯데를 향하자 신 회장이 직접 기업 이미지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현 기자

롯데그룹 " 1만6000명 고용하겠다"

창조 일자리 박람회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1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박람회에 롯데제과·롯데호텔·롯데백화점·롯데케미칼 등 부산·경남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 계열사 20개사와 우수 협력사 6개사가 참여했다. 각 회사들은 방문자에게 회사 소개와 채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채용 서류 접수를 받았다.

특히 롯데푸드, 롯데시네마, 롯데슈퍼, 코리아세븐 등 4개 롯데 계열사는 면접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롯데그룹은 이달 3일부터 2014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인원은 1400명 규모다. 그룹 측은 올해 고졸 및 전문대졸 사원과 경력사원을 포함해 총 1만58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백화점업계 '코리아 그랜드 세일' 돌입

추석연휴 전후 할인행사 내수 활성화 정책 동참



백화점 업계가 추석을 전후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일제히 돌입한다. 이들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보다 세일 기간을 앞당기고 기간도 연장했다.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이달 25일부터 10월18일까지 22일간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지난해보다 6일 앞당기고 기간은 3일 늘렸다. 참여 브랜드 수와 할인율을 늘리고 경품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중추절과 국경절 등 중국의 명절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점을 방문한 중국인 고객 가운데 1명을 추첨으로 뽑아 '황옥 입식 관통 주전자'라는 이름의 옥 공예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역과 홍대, 동대문, 소공동 등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자동 전송하는 '비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도 같은 기간 전국 15개 점포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테마로 가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비해 3일 늘어난 22일 동안 세일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점별로 80~100개 아이템을 선정해 한정수량을 최초 판매가 기준으로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핫 프라이스 위크'를 진행한다. 10월 2일부터 18일까지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가전·가구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2015 리빙 페어'를 진행한다.

압구정 본점에서는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템퍼 초대전'을 진행해 전품목을 10% 할인 판매하고 구매 금액별 할인권도 증정한다. 무역센터점 9층 해당 매장에서는 '나뚜찌 창립 56주년 기념전'을 진행해 인기 쇼파를 특가로 판매한다.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갤러리아명품관에서 외국인고객들을 대상으로 골든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브랜드 별로 상이하게 신상품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단위로 5% 상품권 행사를 진행하고 200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티세트와 티켓케이스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은련62카드로 100만원 이상 구매시 홍삼차와 영국 티세트, 고메이494 김, 애슐린 아트 북 중 하나를 선물로 증정하고 외국인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한국 부동산과 금융상품 관련 직접 투자를 내용으로 금융클래스를 진행한다. /박상길 기자 sweatsk@

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이랜드 방문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16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이랜드그룹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장젠펑 알리바바그룹 부회장은 이날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알리바바 코리안스타일 패션위크' 행사를 앞두고 국내 패션 기업과의 교류를 위한 방한 일정 중 이랜드그룹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규창 이랜드그룹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대표는 "향후 이랜드가 중국 시장에서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강화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가위 맞아 '디지털 상품권' 출시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추석을 맞아 '한가위 디지털 상품권' 5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상품권 출시를 기념해 이달 26일까지 한가위 디털털 상품권 10만원 구매 시 2000원, 20만원 구매 시 5000원을 추가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제공



"에잇세컨즈 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로 오세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PA브랜드 에잇세컨즈가 카카오톡의 캐릭터브랜드 '카카오프렌즈'와의 콜라보레이션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가로수길을 비롯해 강남, 명동, 현대판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 주요 매장 10곳과 온라인 몰에서만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제공

짝퉁 단속 나선 화장품업계

고객센터에서 가품 감별 제품에 히든태그 부착 등 직원 모조품 식별 교육도

#경찰은 최근 100억원대 가짜 마유크림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아온 일당을 붙잡았다. 클레어스코리아의 마유크림은 보습과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형 파운데이션 제품을 본뜬 가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중국인이 구속됐다.

짝퉁 제품은 화장품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다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K-뷰티' 열풍 속 화장품 업계가 짝퉁 화장품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분은 물론 제형, 디자인까지 비슷하게 카피한 짝퉁 화장품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불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짝퉁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짝퉁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현재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위조품 생산과 유통 현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검찰은 헤라의 'UV 미스트 쿠션' 위조품을 중심으로 어디서, 얼마나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고객 상담을 통해 진품 가품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제품의 질이 의심스럽다면 구입 경로를 비롯한 판매처 정보 등 구매 정보를 제품과 함께 고객센터에 보내주면 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위조품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지 현재 검찰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런 만큼 정확한 유통채널 외에는 모두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히든태그 공급 업체 씨케이앤비(CK&B)와 손잡고 마유크림 '게리쏭 9컴플렉스'에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된 히든태그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품과 위조품 구별할 수 있다.

최근 문제된 짝퉁 제품에도 히든태그가 외관상 복제됐지만 클레어스코리아 앱으로 히든태그를 스캔하면 즉석에서 정품과 위조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달 관세청과 함께 서울 명동 매장에서 중국과 홍콩 세관을 대상으로 모조품 식별법 교육을 진행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중화권 내 우리 화장품의 모조품 문제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국을 비롯해 다른 중화권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이 짝퉁 제품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니모리는 피치핸드크림 등 히트 제품들의 모조품을 막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수출국에 제품 용기를 비롯한 특성에 대한 의장 등록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수출 초반 가짜 상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화장품을 많이 수출해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터디 셀러로 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소비자 보호와 안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증거 폐기했다"

민병두 의원 의혹 제기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던 주문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올해 발주프로그램(PAMS21)을 업데이트 하면서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고,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었다.

LG생건,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 증설

입주·분양 계약 체결 6년간 총 3800억원 투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청주시·청주테크노폴리스와 산업시설용지 입주계약과 분양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이번 체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소재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20만5000㎡(6만2000평)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당초 협약체결 면적 12만2314㎡(3만7000평)보다 8만2686㎡(2만5000평)가 늘어난 것으로 투자비도 당초 계획했던 2428억원에서 1371억원으로 증가했다.

계약 면적 중 건물면적은 총 8만 9000㎡로 이중 4만9000㎡는 제조시설, 4만㎡는 부대시설이다.

LG생활건강은 공장 증설 등을 통해 2020년까지 820여명, 2030년까지 1천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범 LG생활건강 상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부지에 공장증설을 통해 화장품사업의 글로벌화와 미래성장에 대비해 생산시설과 물류설비 등을 확충해 시장을 선도하고 충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KT&G, 담배 누적 수출량 5000억개비 돌파

KT&G의 담배 수출량이 5000억 개비를 돌파했다.

KT&G는 지난 15일까지 담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해외 누적 수출량이 5002억 개비를 기록했다고 16이 밝혔다.

현지공장 생산분까지 합치면 총 해외 판매량은 5321억 개비에 달한다.

공기업 시절이던 지난 1999년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해외 수출량은 2002년 민영화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85억 개비로 증가했다.

두산,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 협약

㈜두산(사업부문 대표 동현수)은 16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서 서울디자인재단(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법인·대표 이근)과 '동대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동현수 ㈜두산 사업부문 대표와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2롯데월드 면세점 이전… 관세청 특혜 의혹

확장이전 승인 재심사 촉구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관세청의 위법사항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이달 18일 열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관련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발견됐다며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해 5월 9일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6584㎡)을 제2롯데월드(1만899㎡)로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해 이전할 계획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신청했다.

서울세관장은 같은해 6월 9일 '특허장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했으며 관세청은 내달 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이전결정을 내렸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과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네이처리퍼블릭,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확대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이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의 인기에 힘입어 프리미엄 제품인 진생 로얄 실크 라인의 품목을 확대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선보인 항노화 안티에이징 제품인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은 SNS에서 화제를 모아 단기간에 브랜드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치즈라면’ 됴 푸드로드 연다

오뚜기

고소하고 담백한 맛 동남아 입맛 사로잡아 작년 수출실적 1000억



오뚜기가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치즈라면 수출에 앞서 현지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오뚜기 제공

오뚜기(대표 이강훈)가 ‘치즈라면’으로 아시아 푸드로드를 열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미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실적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오뚜기의 해외 수출 제품은 마요네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즈라면으로 해외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다.

치즈라면은 치즈분말에 들어있어 얼큰하기보다는 고소한 라면이다. 라면은 얼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한국보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판매량이 늘리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치즈라면이 홍콩에 처음으로 수출된 시기는 2011년 4월이다. 초창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2012년부터는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홍콩 전역에 130여개의 매장을 운용하는 ‘759마트’에 입점되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오뚜기의 지난해 라면 수출액 중 홍콩에서 판매된 치즈라면의 비중은 약 20%에 달하며, 2013년 치즈라면의 홍콩 수출액은 50억원에 이른다. 대만에서도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뚜기는 홍콩, 대만 등 외에 새로운 수출국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필리핀에는 현지 유통점에 ‘오뚜기 옐로우 존’을 별도로 만들고 ‘맵지 않고 고품질’인 오뚜기 라면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캄보디아에도 치즈라면 수출을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치즈라면을 판매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영업부서와 인력을 늘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특징에 맞는 제품을 개발, 이를 통해 글로벌 오뚜기로 거듭나는 경영에 한층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입맛대로 치즈가루의 양을 조절해 각자 기호에 맞게 넣고 매콤한 라면 제품에 고소한 치즈를 뿌리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해외영업 부서와 인력을 확대하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특징에 맞는 제품개발로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갑자기 성격 변한 부모님… 치매 의심해 봐야

이대목동병원

증상 체크리스트 소개 진행되면 호전 어려워 조기발견이 최선 치료

오는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함께 제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다.

치매는 흔히 암보다 두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은 11.9명으로 유방암(8.8명), 자궁암(4.9명) 등 대표적인 여성암보다 높을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리면 환자 본인은 물론 사회 활동 제한 등으로 부양가족의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현재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치매 예방과 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치매 예방 체크리스트

- 힌트 줘도 기억 못하면 의심
- 표현이 불분명하면 초기 단계
- 갑자기 성격 변했다면 의심
- 새벽에 요리, 아는길 헤매면 중증
- 일상활동 혼자 못하면 중증 이상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201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속하며, 2024년에는 19.0%, 2034년에는 27.6%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최경규 교수는 “사람 뇌에 있는 1000억여 개의 신경 세포는 재생 능력이 없어 치매가 한 번 진행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의 호전이 어렵고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부모님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의 경우 다가오는 이번 추석 연휴가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적기”라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또는 노망이라 부르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해와 달리 치매는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원인 질환에따라 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약물요법 등을 통해 증상 악화를 막고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억력 감퇴나 언어 장애,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전문 의료진을 찾아 진단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 만족도 조사 이용 사업장 97% “만족” 응답



현장배송 서비스 화면.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안전보건자료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장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1%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료 내용과 배송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자료요청 절차’, ‘배송서비스’, ‘내용구성’, ‘디자인과 편집’과 ‘재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90%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산업현장에 활용도가 높은 산재예방 포스터와 스티커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료를 선택해 배송을 요청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에 무료로 보급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사업장에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초기화면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접속해 원하는 안전보건자료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설업종의 서비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시공능력 1000대 건설업체 본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설현장 교육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해 월 80부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20부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했으며, 종류별, 하루 신청수량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의 정부 3.0의 취지를 살린 맞춤형 서비스로써,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공 컨텐츠 확대 등 보다 실용적인 재해예방 자료를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달걀모양 콧구멍이 가장 이상적

우리가 예전부터 흔히 듣던 이야기 중 하나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거나 높았어도 세계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코는 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는 얼굴의 중심에서 다른 부위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적인 코는 성형외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코 길이가 얼굴 중심에 세로 길이의 1/3이 되어야 예쁜 코라고 한다.

코끝의 높이는 코 길이의 약 2/3가 적당하고, 코끝과 입술의 각도는 남성 90~95°, 여성 95~105° 일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러한 코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콧구멍은 달걀 모양이며, 코끝을 향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콧구멍이 약간 보이게된다.

가장 흔한 비정상적인 코모양은 콧등이 낮은 것으로 콧등을 높여주는 비융비술이 많이 시행되어져 왔다. 콧구멍에 1㎝ 정도 째고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보트(Boat) 모양의 실리콘을 쭉 집어 넣으면 끝나는 수술 20~30분이면 충분히 끝나는 수술이었다. 사실 이것이 코 성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콧등이 낮고 코끝이 낮은 환자에서는 즉 코기둥이 낮으면 보트(Boat) 모양의 실리콘이 아닌 ‘L’ 모양의 실리콘을 사용해 코 모양을 만들어줬다. 이것은 보트모양의 실리콘을 넣는 것보다 10여분 정도 덜 걸린다. 하지만 이런 수술은 요즘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L’ 모양의 실리콘을 넣은지 10년 적으면 5년이 지난 요즘에 실리콘이 만져지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보형물로 인해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요즘 재수술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L’ 모양의 실리콘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다.

눈과 눈 사이 코뼈가 존재하는 부위부터 아래로 두 손가락을 가지고 만져보고 눌러보고 조금씩 비틀어보면 고정된 위쪽과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래쪽으로 코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딱딱한 실리콘 하나로 해결하는 옛날 방식의 수술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해부학적으로 수술 받지 않은 코의 물리적 성질에 맞춰서 수술을 해줘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기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특성과 유사하게 성형을 해줘야 좀 더 이상적인 코 성형이 된다는 것이다.

◇도움글: 이성길 원장(코엔아이성형외과)

/최치선 기자

star bag



수중 발레 연기 도전

배우 **전혜빈**(가운데)이 오멸 감독의 신작 영화 '인어전설'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전직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국가대표 선수 역을 맡아 수중 발레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는 지난 3일 첫 촬영을 시작했다.





'시크릿 드라마' 11월 공개

빅뱅 멤버 **최승현**(탑)과 일본 배우 **우에노 주리**가 주연을 맡은 웹드라마 '시크릿 드라마'가 오는 11월 공개된다. 한국남자와 일본여자가 첫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7개월만에 안방 복귀



배우 **배종옥**이 다음달 방영되는 tvN 새 월화극 '풍선껌'에 합류한다. 극중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이자 주인공 리환(이동욱)의 엄마인 박선영 역을 맡았다. 7개월 만의 안방 복귀다.

비밀 지닌 여고생



아역 출신 배우 **이빛나**가 영화 '사월의끝'에 캐스팅됐다. 이빛나는 극중 숨은 비밀을 간직한 인물인 여고생 주희 역을 맡았다. 김광복 감독의 작품으로 10월 초 크랭크인 예정이다.

첫 뮤지컬 도전



배우 **유연석**이 오는 11월 21일 개막하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로 데뷔 후 첫 뮤지컬에 도전한다. 소속사 측은 "무대에 대한 배우 본인의 갈망과 의지가 컸던 만큼 의미가 깊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김슬기**

김슬기(25)는 개성 있는 외모 만큼이나 많은 매력을 가진 배우다. 필모그래피는 많지 않지만 연극과 뮤지컬,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독창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오 나의 귀신님'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구천을 떠도는 처녀귀신 신순애 역을 맡아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다. 귀신이라는 설정 때문에 16회 동안 단 한 벌의 의상만 입어야 했지만, 신순애는 그를 '국민 욕동생'으로 기억하던 이들에게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민 욕동생'에서 진정한 배우로

오디션 없이 캐스팅 된 첫 작품 각별해
좋은 현장 분위기가 드라마 흥행 원동력
욕심내기보다 꾸준히 연기하는 데 만족
평범해도 행복한 삶이 인생 목표에요

'오 나의 귀신님'은 김슬기에게 각별한 작품이다. 오디션 없이 캐스팅 된 첫 작품이자 첫 장편 드라마 주연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뷰 내내 종영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신순애를 떠나보내는 느낌이 공허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마지막 방송 보면서 많이 울었죠. 정말 슬펐고 실감도 안 됐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여운이 길었죠. 다시는 이런 작품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냥 슬픈 게 아니라 애잔하게 애도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입니다."

작품에 대한 애정 만큼 김슬기는 남달랐던 현장 분위기야말로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드라마 제작 현장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제가 못한 부분마저 좋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잘 보완해주셨죠. 이 제작진과 함께라면 드라마를 평생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과정이 훌륭했기 때문에 결과도 따라 줬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도 그걸 알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잘 될 줄 알았어요. 결과가 따라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울 따름이지요."

김슬기는 이 작품을 통해 본인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동안의 작품에서 주로 왈가닥스럽고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는 'SNL 코리아'를 통해 개그맨으로 오해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오 나의 귀신님'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제 더 큰 꿈을 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김슬기는 스스로도 "갈망했던 꿈은 다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욕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꾸준히 하려고 해요. 어떤 위치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여유로워서 좋죠. 큰 욕심은 더 이상 안 부리려고 해요. 평범하게 살더라도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니까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하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 없어요."

10년 후에는 '지혜로운 아내'가 돼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김슬기는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가졌다. 연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복'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힘을 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이승환,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돌아온다

21일 '그 한 사람' 선공개
내달 1일, 미니앨범 발매

가수 이승환이 1년 6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드림팩토리가 16일 전했다.

이승환은 다음달 1일 미니앨범 '3+3'을 발매한다. 신곡 3곡과 기존에 발표했던 3곡을 수록한 앨범이다. 기존 발표곡은 모두 새로 녹음했다.

앨범 발매에 앞서 오는 21일 선공개곡 '그 한 사람'을 발표한다. 지난해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에 수록됐던 곡으로 이번 앨범을 위해 새롭게 편곡됐다. 원곡의 따뜻하고 섬세한 정서를 고스란히 유지해 보다 깊고 풍성한 감성을 채웠다.

드림팩토리 측은 "'3+3'에 수록되는 신곡 3곡은 뮤지션 이승환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노래들로 채워졌다. 작지만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완성된 노래와 자신의 반려견 지구와 달을 위한 노래 등 소박한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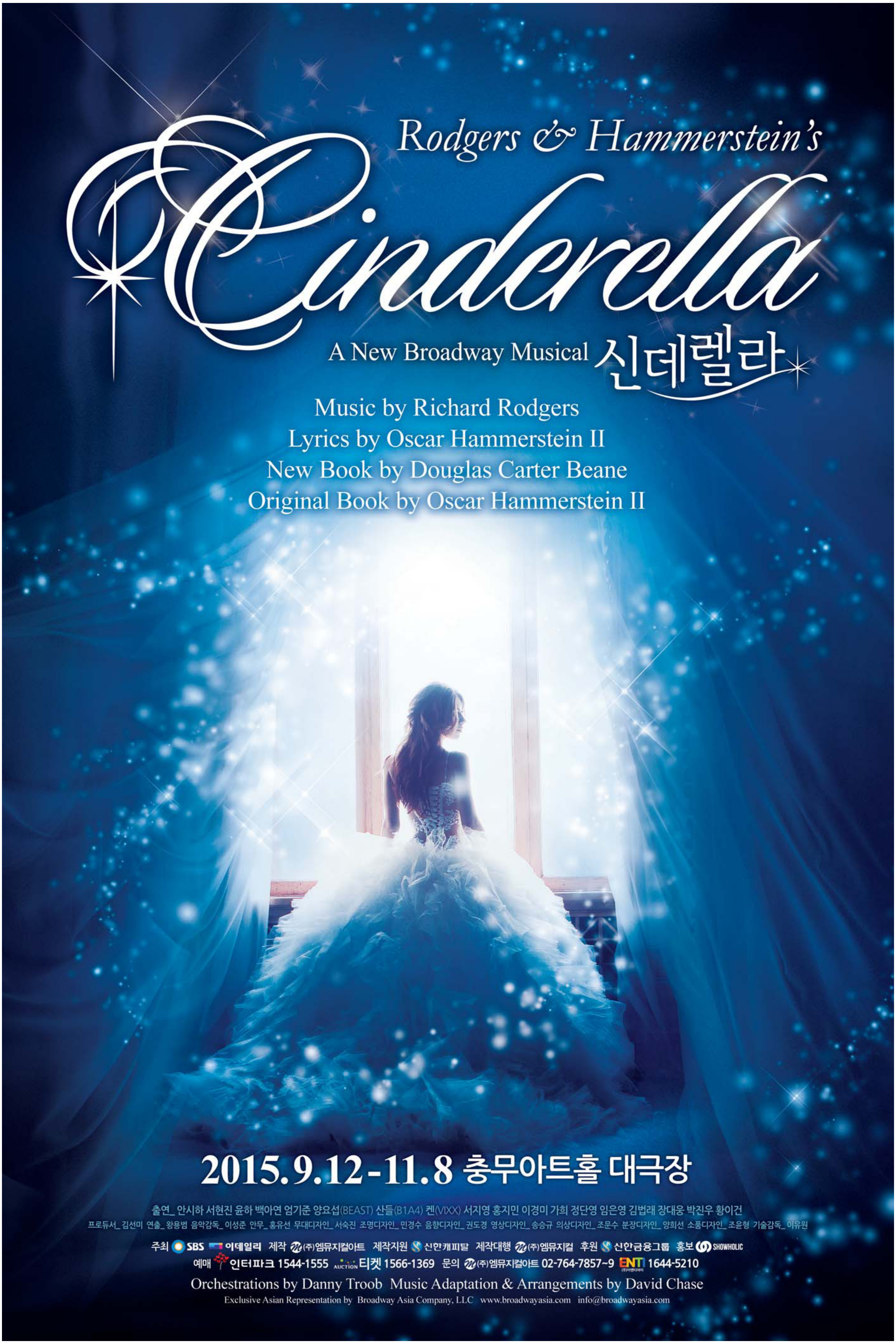
또한 새로 녹음된 세 곡에 대해서는 "이승환이 기존에 발표한 노래 중 본인이 가장 애정을 가진 노래를 선정해 다시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 수록곡은 이규호의 곡을 제외한 전곡을 이승환이 작사, 작곡했다. 솔루션스의 나루, 솔튼페이퍼, 적재, 매드소울차일드 등 젊은 뮤지션들이 편곡에 참여했다.



한편 이승환은 오는 18일과 19일 서울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빠데이-26년 전야제'와 '빠데이-26년' 공연을 연다.

/장병호 기자 solanin@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전설의 록 밴드’ 깊어가는 가을밤 달군다

‘본 조비’, 20년 만의 내한 ‘뮤즈’도 국내서 단독공연



본 조비.



뮤즈.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세계적인 록 밴드들이 한국을 찾아 주목된다. 20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여는 본 조비(Bon Jovi), 그리고 6번째로 한국을 방문하는 뮤즈(Muse)가 그 주인공이다.

오는 22일 오후 8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본 조비의 두 번째 내한공연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밴드의 굳건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1983년 미국 뉴저지에서 결성된 본 조비는 데뷔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세계적인 록 밴드다. LA 메탈이 유행하던 80년대에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배드 메디슨(Bad Medicine)’ 등의 히트곡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다양한 음악적 변화로 변함없는 인기를 누렸다. 국내에는 ‘올웨이즈(Always)’와 ‘잇츠 마이 라이프(It’s My Life)’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13번째 음반이자 팬들을 위한 노래들을 담은 ‘버닝 브릿지스(Burning Bridges)’를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1995년 첫 내한공연 이후 20년 만에 성사된 공연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진 공연인 만큼 팬의 기대가 뜨겁다. 리더 존 본 조비 또한 내한공연 소식을 전하며 “20년 만에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게 돼 너무나 기쁘다. 9월 22일에 만나자”는 인사말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뮤즈는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연다. 2년 만의 내한공연이다.

영국 출신의 뮤즈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록 밴드 중 하나다. 지난 2007년 첫 단독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5차례나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 내한공연은 록페스티벌이 아닌 단독 공연으로는 5년 만이다. 뮤즈의 음악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에 팬들의 관심도 더없이 뜨겁다.

지난 6월에는 초창기 음악으로의 회귀를 표명한 새 앨범 ‘드론즈(Drones)’를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새 앨범 발표를 기념해 진행되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다. 베이스를 담당하는 멤버 크리스 볼첸홈은 이번 내한공연에 대해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많은 팬이 늘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 팬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슈퍼위크 콜라보 배틀 미션



◆ 엠넷 ‘슈퍼스타K7’

오후 11시

슈퍼위크 콜라보 배틀 미션이 펼쳐진다. ‘슈퍼스타K’ 역대 시즌에서 화제의 무대들을 탄생시켰던 미션이다. 심사위원 백지영은 한 무대를 접한 뒤 박수와 함께 “이게 콜라보지”라며 극찬을 보낸다. 윤종신은 “심사위원끼리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며 심사위원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많았음을 털어놓는다.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이홍기-후지이 미나, 김유리-오타니 료헤이, 최희-파비앙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내 친구는 외국인’ 특집이다. 파비앙은 최희가 예쁜 작가 누나인 줄 알았다고 털어놓는다.



◆ JTBC ‘썰전’

오후 11시

‘젊은 보수’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가 일일 패널로 합류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파문 등 차기 대권주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석한다.



◆ KBS1 ‘명견만리’

오후 10시

‘대륙의 딜레마, 중국 경제 위기론’ 편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성태윤 교수가 지난 한 달 동안 면밀히 취재한 ‘중국 경제 위기론’을 살펴본다. /장병호 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일 (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OCN series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신인류 식품관 (재) 10:10 유자식상팔자 (재) 11: 30 마녀사냥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나는 자연인이다 (재) 11:50 아궁이 (재)	05:25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 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5:20 마마 07:20 과거를 묻지마세요 08:30 뉴욕특수수사대 시즌10 10:20 신의 퀴즈 시즌2 11:20 무비스토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00 2015 전국 대학 농구 15:55 튼튼생활체조 16:00 오늘의 경제 16:10 하늘 길을 잡아라, 공항 전쟁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500회 특집 위기탈출 올스타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그녀는 예뻤다 13:30 앙코르 MBC 다큐스페셜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연쇄쇼핑가족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6:2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7:30 코미디 빅리그 (재)	12:30 프리즌 브레이크 14:10 컨티넘 시즌2 15:00 CSI NY 시즌8 16:40 뉴욕특수수사대 시즌10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명견만리 23:00 KBS 뉴스라인 23:40 100세 시대, 이제는 건강복지다 24: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비타민 22:00 어셈블리 23:10 해피 투게더 24: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5 경찰청 사람들 2015 24: 35 MBC 뉴스 24 24: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유자식상팔자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3:00 썰전 24:20 비정상회담 스페셜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21: 45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어쩌다 어른 (재) 23:00 슈퍼스타K7 24:40 두번째 스무살 (재)	18:20 홍길동의 후예 20:20 컨티넘 시즌2 21:10 모티브 22:00 TV방자전 24:05 메디컬 기방 영화관

NC '나이테' 폭발… 388타점 합작 맹활약

KBO리그 최강의 중심타선
각기 다른 개성으로 기록 행진


나성범.


이호준.


에릭 테임즈.

NC 다이노스의 '나·이·테(나성범·이호준·에릭 테임즈)' 트리오가 338타점을 합작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세 선수는 NC의 시즌 팀 타점인 696타점의 절반 가까이를 만들어 냈다. KBO리그 최강의 중심타선이다.

이호준(39)은 15일 마산구장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만루홈런을 터트렸다. 시즌 타점은 99점에서 103점으로 뛰어올랐다. 나성범(26)은 같은 경기에서 3점포를 쏘아 올리며 시즌 타점을 112점으로 끌어올렸다. 테임즈(29)는 이날 경기에서 무안타로 주춤했지만 이미 123타점을 올려놓은 상태다.

KBO리그에서 한 팀이 한 시즌에 100타점 이상을 올린 타자 3명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기준으로 올 시즌 100타점 이상을 기록한 타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테임즈가 2위, 나성범 5위, 이호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으로 이 같은 결과를 냈다. 테임즈는 올해 사이클링 히트를 2번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한다. 시즌 첫 20홈런-20도루, 30홈런-30도루 고지를 밟은 데 이어 KBO 전인미답의 기록인 40홈런-40도루에 도전하고 있다. 도루 4개만 추가하면 대기록을 완성하게 된다.

나성범은 NC의 미래다. 지난해 그는 타율 0.329에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하며 토종 해결사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올 시즌에는 주루에 욕심을 내 20홈런-20도루를 먼저 달성했다. 현재 타율 0.325, 25홈런, 112타점, 98득점, 22도루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호준은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준다. 이번 만루포로 이호준은 KBO 통산 27번째로 3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한 타자가 됐다. 한국 나이로 마흔에 이룬 쾌거다.

이호준은 SK 와이번스에서 뛰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렸다. 10년 후에 당시 전성기 못지않은 경기력으로 3년 연속 20홈런을 생산해낸 것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개인 통산 300홈런을 완성했다. KBO 통산 8호다. 꾸준한 관리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젊은 팀 NC에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슈틸리케 감독, 추석은 축구장에서

28일 서울–광주전 관전
29일 쿠웨이트전 선수 발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61·독일·사진) 감독이 추석에도 축구장을 지킨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슈틸리케 감독이 28일 추석 당일에 치러지는 K리그 클래식 FC서울-광주FC 경기를 보러갈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카를로스 아르무아 코치와 함께 경기장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경기장을 찾았다. K리그 클래식(1부)과 챌린지(2부) 등을 관전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때는 골키퍼 자원을 지켜보려고 두 차례나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경기를 보기도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K리그 클래식 경기로는 유일하게 서울-광주전이 예정돼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변함없이 관전을 희망하고 나섰다.

슈틸리케 감독은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무실점 3연승 행진을 펼치며 G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쿠웨이트(승점 9)와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1위로 나섰다.

월드컵 2차 예선 3경기에서 연승을 따낸 슈틸리케호는 내달 8일 쿠웨이트시티의 국립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4차전을 치른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는 29일 쿠웨이트 원정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강정호, '베스트 루키' 부문 후보 올라

"피츠버그 포스트시즌 진출에 핵심적 역할"



올해 미국 프로야구에 첫 진출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베스트 루키' 부문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 MLB닷컴은 16일(한국시간) '이슈어런스 MLB 어워드' 후보를 발표했다. 강정호는 '베스트 루키'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강정호에 대해 "처음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최고 수준의 프로 야구선수임을 입증했다"며 "피츠버그의 포스트시즌 진출 시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슈어런스 MLB 어워드는 골드글러브, 최우수선수(MVP), 사이영상, 올해의 신인 등 전통적인 연말 시상과 선정 방법이 다르다. 기존 시상들이 대부분 미국 야구기자협회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했다면 이 상은 언론은 물론이고 프런트 직원, 은퇴 선수, 팬의 투표로 우열을 가린다.

한편 강정호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연속 2경기에서 도합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8(416타수 120안타)로 내려갔다.

/장병호 기자



손흥민, 유로파리그 출격하나

조별리그 1차전 출전 유력
생애 첫 유로파리그 무대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데뷔전을 치른 토트넘의 손흥민(23·사진)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데뷔전을 준비한다.

손흥민은 18일 오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리는 2015-2016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예선 1차전 카라바크(아제르바이잔)와 경기에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파리그는 UEFA 챔피언스리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유럽 축구 클럽 대항전이다. 손흥민이 이 무대에서 뛰는 것은 처음이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시절 2013-2014 시즌부터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았다. 이번 시즌에도 레버쿠젠은 본선에 진출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뛰지 못하게 됐다.

대신 토트넘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5위를 차지해 유로파리그에 나서면서 손흥민도 생애 처음 유로파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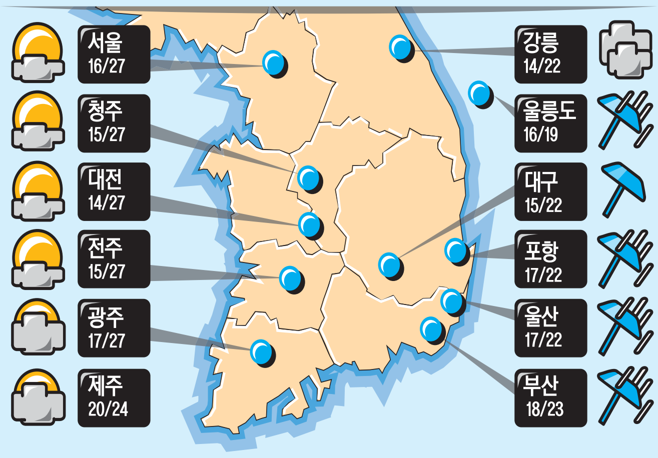
손흥민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3골을 넣었던 경험이 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유로파리그에서도 대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 기자

날씨

9/17 목 일출시각 06:15 일몰시각 18:3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5			
3	2	6	4					
				6	2			9
5	4					2		
7		8				5		3
		9					7	4
8			1	2				
					3	1	4	6
			9	7				2

		3		5			6	
		6	2	3				7
9		5			8		1	
3				2	6		7	
	9		4	8				3
	7		5			8		6
6				7	9	2		
	8			4		7		

스도쿠 정답

4	9	7	3	1	5	6	2	8
3	2	6	4	9	8	7	1	5
1	8	5	7	6	2	4	3	9
5	4	3	6	8	7	2	9	1
7	1	8	2	4	9	5	6	3
2	6	9	5	3	1	8	7	4
8	3	4	1	2	6	9	5	7
9	7	2	8	5	3	1	4	6
6	5	1	9	7	4	3	8	2

7	2	3	9	5	1	4	6	8
8	1	6	2	3	4	5	9	7
9	4	5	7	6	8	3	1	2
3	5	8	1	2	6	9	7	4
4	6	2	3	9	7	1	8	5
1	9	7	4	8	5	6	2	3
2	7	9	5	1	3	8	4	6
6	3	4	8	7	9	2	5	1
5	8	1	6	4	2	7	3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You should call ahead for an appointment

A: See this?
B: Nice! Newly done?
A: Yup! They squeezed me in at the last minute.
B: They look flawless. I love it.
A: They do a fantastic job while keeping it affordable.
B: Maybe I should visit the place. Where is it again?
A: On the 1st fl of my office bldg.
B: While I'm at it, I'll get a pedicure, too.
A: **You should call ahead for an appointment.**
B: I. C. Well, how often do you get a pedi?
A: Maybe once or twice a month. I also do it myself.
B: But removing dead skin is really a pain.
A: True.
B: Plus it makes your back hurt after a while.
A: Um, let me tag along w/u. Make it for two plz.

예약하려면 미리 전화해야 해

A: 이거 보여?
B: 예쁘다! 새로 받은 거야?
A: 응! 막판에 날 넣어줬어.
B: 완벽한 거 같다. 맘에 들어.
A: 엄청 잘하는데 가격도 착해.
B: 거기 가봐야겠다. 어디랬지?
A: 회사 건너편 건물 1층이야.
B: 내친 김에 페디큐어도 받아야겠다.
A: **먼저 예약 전화 해두는 게 좋을걸.**
B: 알써. 근데 페디큐어는 얼마나 자주 받니?
A: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가 할 때도 있어.
B: 하지만 각질 제거는 넘 귀찮잖아.
A: 마자.
B: 게다가 등허리도 아프다니까.
A: 나도 갈게. 두 명으로 예약해줘.

* fl: floor의 약어
* bldg.: 빌딩의 약어
* plz: please의 약자
* w/u: with you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종교가 달라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음력 10월이 지나야 두분 향방 정해지실 듯

긍정의 힘 남자 78년 1월 20일 음력 사시
여자 86년 3월 1일 음력

Q 선생님 저희 궁합이 궁금합니다. 여자 86년 음력 3월 1일생 이고 남자 78년 음력 1월 20일생입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종교가 (기독교, 무교) 달라서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으니 한두 가지의 문제는 이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 안주고 존중하면서 지내는데 부모님께서는 종교문제로 반대를 하십니다. 저희 궁합은 어떤가요? 크게 문제만 없다면 그냥 서로 종교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결혼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A 86년 호랑이 띠인데 호랑이(寅)는 보통은 낮에는 숲속이나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이 되면 일정한 행동권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합니다. 보통 단독이나 때로는 쌍으로 또는 여러 마리가 함께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몰래 다가가는 것보다 잽싸게 덮쳐서 사냥감을 쓰러뜨립니다.

지금은 2015년 음력 8월이고 음력 10월 해월(亥月)이 되면 86년 인(寅)은 10월 해(亥)를 병(病)들게 합니다. 이때는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입니다. 10월이 지나야 두 분의 향방이 정해지리라 봅니다. 그 후 다시 상담신청하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일상적인 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와 상대방의 결혼가치관은 어떤지와 우리 집안의 결혼식 문화는 어떤지 상대방 집의 결혼식 문화 역시 어떤지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 남녀 간에 너무 사랑하니 결혼하자고 한 순간부터 현실을 마주하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돈 간의 냉각기 등으로 날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집안 사정상 도와주는 이 없이 준비해야 하고 결혼준비로 가족 간에 날마다 서운함이 존재하여 처음에는 결혼반지 하나에 결혼식만 올리겠다는 두 분의 생각이 주변 가족 중 어른들의 개입으로 패물은 해줍시다. 그럼 예단 비를 보냅시다. 혼수를 좀 합시다. 등으로 규모가 커지면 결혼에 대해 점점 감당하기 벅차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결혼의 달콤한 로망만 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이야기 하며 서로의 생활패턴이나 앞으로의 인생 설계를 함께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7일 (음 8월 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귀하를 돕는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 입니다. **72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됩니다. **84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소 **49년생** 종교가 있다면 기도가 최선입니다. **61년생** 노력하며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3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5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기세요.

호랑이 **50년생** 이성을 잃지 마세요. **62년생** 육신이 고달프니 이 내 몸이 외롭습니다. **74년생** 노력하면 얻을 것입니다. **86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토끼 **51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3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금물입니다. **75년생** 천생배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87년생** 돈이 막히는 날입니다.

용 **52년생** 미리 대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64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76년생** 서쪽이 길방입니다. **88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뱀 **53년생**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65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77년생** 일을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89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말 **54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66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78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90년생** 젊은 날의 쾌락은 잠시뿐임을 잊지 마세요.

양 **55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보게 됩니다. **67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79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91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6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80년생** 현실적인 소망을 먼저 이루도록 하세요. **92년생** 몸의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닭 **57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69년생** 시작이 반 입니다. **81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93년생**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개 **58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70년생** 일찍 귀가하세요. **82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94년생** 당신을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좌절하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곧 나가게 됩니다. **71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보세요. **83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95년생** 근신자중의 날입니다.

장벽 없는 예술지원은 문화융성의 지름길



영매화 김 미 경
서양화가

어려서부터 서화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붓글씨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DNA가 됐다.

서른 중반의 나이에 시작한 그림은 어려서부터 꿈꾼 일이라 자는 것조차 아까웠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스스로 행복해 했다.

먹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작품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영매화'라는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르와 재를 활용한 '영매화'는 3년 연속 '순국선열의 날'에 독립관에서 특별초대전으로 빛났다.

2000년 이후 10년 넘게 전업작가로 살면서 늘 넉넉하지 못한 생활고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내게 전시회는 힐링의 시간이다.

1년에 많아야 2~3회 뿐이지만 크고 작은 전시회를 통해 내 작품이 일반인들과 소통할 때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

처음엔 탑차를 사서 100호가 넘는 작품을 직접 운반하느라 애를 먹었다. 덕분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갔다. 이렇게 그림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고 어디서도 찾지 못했던 행복을 안겨줬지만 가져간 것도 있다.

바로 나의 건강이다. 타르와 독한 유화 물감을 사용해 비좁은 공간에서 밤새 작업을 하니 좋았던 시력이 점점 안 좋아졌다. 게다가 겨울철 찬바람에 무릎 관절이 약해졌다.

그렇다고 후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 작가에게 소통만큼 중요한게 없다는 것이다. 내 그림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 작품들이 숨을 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들에게 소통의 장은 숨통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장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선진국일수록 예술가들이 마음껏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인색하지 않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예전보다 많은 기회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작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중 하나는 문예진흥기금이다. 하지만 해마다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크다. 지원역시 불투명하다. 이처럼 운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만 완벽할뿐이다. 기타 행정적인 절차와 문서작성 등에는 대부분 문외한이 많다. 이런 현실을 정부 관계자는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모으고 작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고민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입맛대로 선정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정부는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다. 사기업이 아니기에 모든 국민이 피같은 세금을 정부에 내주는 게 아닌가. 예술가에 대한 지원 역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권 유지를 위해 얄팍한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이들은 바로 예술가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다. 시인이나 소설가 등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발표할 문예지가 필요하고 나같은 화가에게는 전시공간이 절실하다. 좀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성별, 나이, 사상 등을 떠나 오롯이 작품만으로 평가받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社 說

북한은 경거망동 말아야

북한이 연이틀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전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인공위성이다. 북한은 이어 15일 원자력연구원장이 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엄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다음달 16일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실제 공언대로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 시점에서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남북한 사이에 오랜만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불쑥 내밀었기에 당혹스럽기도 하다.

남북한은 지난 8월25일 남북한 고위급접촉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남북한의 각종 교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엄포를 놓은 15일에도 남북한은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을 교환했다. 돌발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달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처럼 지금 한반도에는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한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북한 고위당국자들도 비슷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남북한은 서로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상서롭지 못하다. 만약 북한이 엄포를 실행에 옮긴다면 한반도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은 멀어진다. 특히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동북아시아에 거친 파도가 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란다.

벤츠 고객서비스,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도마 위에



기자 수첩
정 용 기
<산업부>

지난 9월 11일 30대의 한 남성이 자신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다. 2억원대의 이 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수차례 꺼졌는데도 교환·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운전자는 반복된 시동꺼짐 현상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할뻔 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은 벤츠가 250억원이 투자된 '트레이닝 센터' 개점식을 거행하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날이기도 하다. 벤츠 트레이닝 센터는 자사 직원들의 판매·기술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다. '벤츠 골프채 사건' 때문에 트레이닝 센터는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됐다.

수입자동차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은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다. 부족한 사후서비스(AS)망과 값비싼 수리비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차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비싸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수입차 평균 수리비(275만원)가 국산차(95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다는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벤츠 임직원들의 소통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벤츠 임직원들이 이 소비자와 가졌던 수차례의 소통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형사 고소라는 막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벤츠 골프채 사건'이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많다.

2002년 설립된 벤츠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자다. 올해 1~8월 3만561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점유율 19.25%를 기록했다. 판매량에 걸맞은 고객만족도 1위를 이루기 위해 벤츠는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터넷 '욕설 댓글' 모욕죄 성립 될까

생활법률

합의 후 고소 취하 가능 유죄시 손배청구까지도

A씨는 몇 달 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헐뜯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B를 향해 댓글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자신을 수소문 해 모욕죄로 기소한 것. 홧김이었지만 욕설 댓글을 올린 것을 후회하는 A씨.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해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해 A씨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B씨는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 사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백승근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 박석종 ▷부회장 설동성 ▷이사 최종인 조현준 ▷연구원장 박기인 ▷연구원 부원장 이금옥 강문승 ▷교육원장 이승경 ▷사업단장 박장환 ▷사업단 부단장 도선필 ▷사무국장 이재숙
◇김포시 △4급 승진 ▷이성구·최돈행 △5급 승진 ▷임헌경·황창하·박정우·이용업·권오철·김동수
◇대전대▷기획처장 김정일 ▷학생처장 겸 혜화봉사단 부단장 원주연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한 철 ▷편집국 개발팀장 부장 송덕

부 고

▲서원석(한국사이버외국어대 교수)씨 별세, 순식(춘천교육대 교수)·경숙·진숙(배화여고 교사)씨 동생상, 이인철(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씨 처남상 = 16일 오전 7시 50분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 070-7816-0235
▲김경남씨 별세, 흥수(국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흥식(서해문집 대표)·흥숙(시인)·수자(일러스트레이터)·혜경(소설가, 필명 김이경)씨 부친상, 정남수(세미테크 고문)·이종대(GS칼텍스)·유종오(공인회계사)씨 빙부상 = 16일 오전 8시20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 02-2227-7500
▲장영자씨 별세, 정연진(일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씨 빙모상, 이정민(서예가)씨 모친상 = 16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 02-2258-5940


SOLCO.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수소샘
H₂-Dispenser®
추석맞이 가족사랑 이벤트
'백세건강연구소'가 드리는
'대한민국 건강프로젝트'
100세 시대
100일 체험
100분 한정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벤트는 9월 말까지만 진행됩니다.
백년건강 수소수가 답이야
H2
| 전속모델 |
가수 윤수현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수소샘
검색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₂O)에서 산소(O₂)와 수소(H₂)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백금 | 티타늄 | 백금
백금 | 티타늄 | 백금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2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3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